

누가 나오는지 어디서 하는지 비밀!



공연자·장소 비공개 '소파 사운즈 광주' 세 번째 공연
3월 2일 '파자마 파티' 16일까지 신청... 1박 2일 접수도
디렉터 김한열씨 "새로운 음악 편견없이 접하자"는 취지



지난해 '소파 사운즈 광주'에 출연한 '센치한 버스'.

'지금까지 이런 콘서트는 없었다.' 누가 나오는지, 어디서 공연하는지 알려주지 않는 공연이 있다. 좋아하는 뮤지션을 보고자하는 '팬심'으로 티켓을 끊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심지어 출연진은 공연 당일까지 비밀이다. 온라인 관람 신청을 해선착순에 들면 그제서야 공연하는 장소를 알 수 있다.

공연자와 공연장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파 사운즈 광주'의 세 번째 무대가 오는 3월 2일 열린다. '방에서 듣는 음악'(Songs From A Room)이라는 뜻을 지닌 '소파 사운즈'는 2009년 영국 런던의 한 작은 방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427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4년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김포, 부산, 대구에 이어 지난해 9월 광주에서 첫 무대를 가졌다.

공연은 집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열린다. 소음이 많은 대형 공연장을 벗어나 출연자와 관객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연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파 사운즈의 가장 큰 모험이다.

소파 사운즈 광주 디렉터 김한열(34)씨는 "장르와 인지도에 상관없이 새로운 음악을 편견 없이 접해보자는 취지에서 뮤지션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와 호스트(Host), 관객, 스태프 함께 만드는 '프라이빗(Private) 콘서트'를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열씨는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공연기획자다. 전남대 후문 문화아지트 '에포케' 대표인 그는 1930 양림살롱, 오월창작가야제, 달빛동맹 콘서트 등에서 일

했다. 김씨가 이끄는 소파 사운즈 광주는 지난해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공연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첫 발을 뒀고 7명이 자원 봉사로 공연진행을 함께 하고 있다.

소파 사운즈 광주의 실험적인 공연은 예상외의 선전을 거뒀다. 세 번째 공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밀아와 밴드 더스키톤이 출연한 첫 공연은 광주극장 영랑의 집에서 열렸고 같은 해 11월에는 남구 양림동 콘텐츠 기획사 '아트주' 정현기 대표의 개인집무공관에서 이뤄졌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는 30평(100㎡) 남짓한 건물 3층에서 50여 명의 관객은 웅기종기 바닥에 앉아 2시간여 동안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출연진은 4인조 어쿠스틱 밴드 '센치한 버스'와 서울 흥대 클럽에서 노래하는 신승은이었다.

이날 광주에서 첫 공연을 가진 신승은은 '동종업계 종사자', '애매한 게' 등 재치있는 가사의 자작곡을 부르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그는 "무대에 서는 직업은 누가 올 지 모르는 상태로 관객을 맞는데 소파 사운즈의 경우에는 출연자와 관객이 서로를 알아가며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 공평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겨울 휴식기를 가졌던 소파 사운즈 광주는 3월 2일 공연 관객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홈페이지(sofarounds.com/gwangju)를 통해 접수한다. 이날 공연의 콘셉트는 '파자마 파티'다. 관객은 편한 실내복 차림으로 공연과 홈파티를 즐길 수 있으며 1박2일 일정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석 1만원(숙박 3만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도자기에 새긴 사랑 메시지

이경숙 도예전 28일까지 LH휴광갤러리



'샘물소리'

도예작가 이경숙 개인전이 오는 28일까지 광주시 서구한국도자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 본부 1층 LH휴광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글을 소재로 한 도자 작품을 선보인다. 조형적으로 아름답고 독창성과 과학적인 면까지 갖추고 있는 한글을 오랫동안 소재로 활용해 온 작가는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은 다양한 글씨들을 도자기에 새기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작들은 '사랑'을 주제로 했다. 곁에 있다는 이유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람과 사물에 고마움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작품들이다.

전시에서는 사람들에게 정량함을 전하는 물소리를 노래한 '샘물소리' 등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운명처럼 흙을 만났고 숙명처럼 한글을 만났다"고 말하는 이 작가는 한글을 도자기에 표현하는 작업 방식은 힘이 들지만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작가는 호남대학교 대학원 예술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과정을 졸업했으며 제47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특선 등을 차지했다. 우수 도예공방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호남대학교대학원도사학, 광주전남도예가협회, 사발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토·일요일 휴관. 문의 062-360-31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유·스퀘어 청년작가 김인지전

20일까지 금호아트홀



'EVER FLOWING'

김인지 작가 개인전이 오는 20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해 금호갤러리가 진행한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전에 당선돼 마련된 전시다.

전시 주제는 'EVER FLOWING III-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다.

전시작은 산책과 공상을 좋아하는 작가가 주변의 일상과 사물에서 느낀 감정들을 추상적인 형태와 다양한 색채로 표현해낸 작품들로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빠른 속도감이나 다양한 곡선들은 작품을 화려하게 연출해준다. 작가는 수차례 표현기법을 연구하고 전통 한국화 재료인 먹과 분체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즉흥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작품들은 또 몽환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김 작가는 전남대 한국화과와 이화여대 조형예술학부 동양화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문의 062-360-843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윤성희 트리오·이영주 재즈 선율

15일 예술의 거리 살롱드재즈



윤성희

이영주

피아니스트 윤성희 트리오와 보컬리스트 이영주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예술의거리 살롱드재즈(예술길 19-2)에서 재즈 공연을 펼친다.

윤성희는 지난 2010년 1집 앨범 '라이크 어 스펠'과 2015년 2집 '사계'를 발표하며 연주자 뿐만 아니라 작곡가·편곡가·프로듀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윤성희를 중심으로 베이시스트 임대섭, 드러머 유현석이 결성한 이 재즈 트리오에는 이날 유명 재즈곡과 자작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재즈 보컬리스트 이영주는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주목 받고 있다. 버클리음악대학과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를 졸업한 그는 보스턴·뉴욕 등에서 공연활동

을 했고 국내에서는 서울뮤지워크, 청남대 재즈토닉페스티벌, 울산재즈페스티벌, ACC월드뮤직페스티벌 등 무대에 올랐다. 현재 성신여대, 동덕여대·대학원, 백석예대, 추계예대 콘서바토리에 출강하고 있다. 전석 2만원. 문의 010-9992-440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노자와 떠나는 16주 여행

양희석 전남대 교수 강좌...3월 6일부터 비움박물관



유아 인식을 조망해 보는 자리다.

강의 교재는 양 교수가 '노자'를 문학적인 면을 강조해 해석한 후 최근 출간한 '문(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이다.

양 교수는 한국 중국학회학회 회장 겸 중국 인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한 후 '어느 동양학자의 산티아고 까미노'를 펴냈다. 수강료 16만원. 문의 062-530-090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노자(老子)'를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강좌가 진행된다. '도덕경(道德經)'으로 불리는 '노자'는 중국 대표적 철학 저술로 전체 81장(5400자)을 통해 동양적 지혜의 정수를 담고 있다.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와 비움박물관은 오는 3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6주 과정(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으로 '노자를 읽다' 강의를 개최한다. 비움박물관(전남여고 맞은편)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의 강사는 양희석(사진) 전남대 중문과 교수다.

이번 강의는 '노자'를 넓고 깊게 완독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울러 '장자', '논어', '맹자' 등과의 비교를 통해 동양적 사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특히공법

- 완벽한방수
- 난연소재
- 맞춤디자인
- 2중복합단열
- 내진보장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인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연회비

구분	연회비(VAT포함)	비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